

온세통신 대표이사

장상현



“유·무선 종합정보통신회사 될 터”

온세통신은 현재 국제·시외전화에 이어 시내전화를 포함,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IDC를 근간으로 하는 포털에서 전자상거래까지의 종합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내전화부가서비스와 인터넷 데이터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에서의 사업권 획득도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유·무선 종합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뛰고 있는 온세통신의 장상현 대표이사를 만나 본다.

Q 온세통신은 처음 국제·시의 전화 사업시 다른 업체에 비해 빠르게 안정세에 진입했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A 온세통신이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업자 위주가 아닌 고객 위

주의 사업 방침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국내 최저 요금제 운영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전화의 경우 국내 최초 점심시간 할인제, 초단위 요금제 등 고객 편의의 요금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제전화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

다. 또한 고객만족센터의 24시간 운영을 통해 언제라도 고객이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으로의 진입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온세통신은 국제전화, 시외전화, 데이터사업에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데이터센터, 온라인서비스 등의 인터넷 사업을 통해 인터넷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세통신은 국제전화 서비스를 첫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 통신사업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해 인터넷 업체로 변신하는데 있어 이미지 메이킹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온세통신이 구축하고 있는 IDC 센터 현황과 다른 업체와 비교시 특·장점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온세통신은 7월초 부산지역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지상 5층 500평 규모의 인터넷 데이터센터(i-base)를 오픈했습니다.

향후 3,000억원을 투자하여 벤처기업과 정보통신기업이 밀집한 서울지역에 1만평 규모의 데이터센터와 분당에 1000평, 대전에 500평, 인천에 500평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200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온세통신의 대용량 신비로망을 통해 전국적인 인터넷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온세통신의 인터넷데이터센터 i-base의 특징은 기가비트(Gigabit) 백본의 고속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이중 네트워크 구성으로 장애없는 24시간 365일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전국 데이터센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고

객 지향적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대용량의 국제 회선 및 백본망을 보유하고 있어 타사업자 보다 가격 및 품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사업 교류 차 자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으로의 진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대북통신사업을 통한 성장성은 북한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를 감안할 때 매우 높은 반면, 통신사업권을 보유한 국내업체로는 온세통신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과의 협력 방안은 당사가 50%의 지분을 현금으로 투자해 통신사업권을 가지고 통신망 설계에서 구축, 운용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주과수를 할당해 줌으로써 사업권을 보장해 주고 통신망을 운용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전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사업권을 획득하되, 실제 투자는 수익성을 위주로 점진적으로 집행하여 지역별로 사업 개시 2년차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세통신이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온세통신은 전국 기간망과 해저케이블 및 위성을 통해 국제/시외전화에 이어 시내전화를 포함하는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접속에서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IDC를 근간으로 포털에서 전자상거래를 망라한 종합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국제전화/시외전화/데이터/인터넷신비로/초고속 샤크의 5개 사업부문으로 대별되며, 여기에 당사가 현재 부가

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시내전화 부가서비스와 인터넷 데이터 비즈니스센터의 건립입니다.

온세통신의 발전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voice 부문에서는 국제전화와 시외, 시내전화 부문을 bundling 서비스로 묶어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며, 데이터/인터넷 부문은 IDC, 즉, 데이터센터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NI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사의 모든 서비스를 bundle화 하여 voice/인터넷은 물론, 망의 설계와 구축,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솔루션 및 컨설팅과 포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종합정보통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것입니다.



IMT-2000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IMT-2000 사업권은 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희 온세통신은 자체적으로 IMT-2000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KT 컨소시엄에 지분참여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국내 인터넷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인터넷은 전세계 모든 분야를 상호작용의 매체로 신 가치창출의 근원인 통신 신경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궁한 인터넷 사업분야의 적용과 수평적 발전이야말로 그 나라의 경제적 원동력을 이루는 밑거름이라 판단됩니다. 마치 중동의 산유국과 같은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되지요.

인터넷 환경변화가 정부차원의 통신정책, 통신사업자의 사업전개가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용자의 이런 욕구가 도화선이 되어

향후 1~2년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전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국내 인터넷 현황을 보면 초고속가입자가 현재 약 220만명이고 이용자 증가율도 97년에 비해 약 8배 이상 증가한 상황으로, 미국의 경우 2배, 일본의 경우 2.3배 증가에 비해 월등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트래픽도 향후 5년 뒤면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로 가입자 구간에서 중계 전송망 모두 광대역 초고속망이 필연적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인터넷이란 신경계의 정상케도에 진입하여 시시각각 탄생하는 새로운 사업환경에 적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키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투자와 사업자별 자원의 공유 및 탄력적인 규제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별 사업자 및 정부가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